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출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xport Risk Management in the Changing of Export
Payment Methods

김병학(Byung-Hak Kim)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홍길중(Gil-Jong Hong)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강사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II. 무역결제방식의 일반적 고찰 | V. 결 론 |
| III.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와 수출보험제도에
주는 시사점 | 참고문헌
Abstract |

Abstract

The recent trend in the payment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shows the gradual shift toward more diversified payment methods (from L/C to not L/C) 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ingly dynamic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a more flexible manner.

The reasons behind this recent shift are as follows : first, the global trade market is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L/C methods based on letters of credit toward a not L/C methods. nother reason for the changing trade payment methods is the increasing volume of intra transactions between headquarters and their foreign subsidiaries based on collection payment methods.

Having mentioned the above problems that impede the Korean export insurance system, some suggestions can be put forwar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foreign export insurance system. First, inducing private investments is one way of strengthening financial health of the KEIC. The KEIC also needs to diversify its insurance coverage adapting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s.

Key Words : Payment Terms, Export Insurance System

I. 서론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거래당사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무와 권리가 발생시킨다. 거래당사자의 의무측면에서 보면 매도인인 수출업자에게는 물품인도 의무와 매수인인 수입업자에게는 대금지급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렇듯 거래당사자에게 의무를 지워주는 반면 수출업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수입업자는 물품인도를 청구할 권릴 가진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상이한 두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거래로 비대면 격지자 거래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신용위험(credit risk)과 거래당사자 의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환거래 제한이나 금지 등으로 대금결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상위험(political risk)이 발생할 가능성이 국내거래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제무역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결제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신용장 통일규칙과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제정되었다. 특히 신용장은 국제무역 활성화를 가장 큰 장애요인인 수출업자의 대금회수 불안과 수입업자의 상품인수의 불안을 동시에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결제방식으로 지난 수 십년 동안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결제방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무역결제방식의 사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상거래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단기간 내 수출시장 확대전략을 추구해온 결과 선진국과 달리 거래의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결제수단인 신용장 방식을 더 선호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무역거래에 있어 대금결제는 과거의 신용장 방식에서 점차 무신용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금결제의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해외지점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추심거래를 이용하여 해외 본사기간 사후송금방식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의 증대로 인하여 기존의 신용장 이외에 새로운 결제방식을 요구하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금결제의 신속함과 안전성은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거래은행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앞으로 국제적인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무신용장거래나 전자무역대금결제가 늘어가면서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대금회수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무역지원 정책의 개선은 이러한 대금회수의 위험에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지원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수출보험의 경우 신용장 기준을 사용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결제방식의 변화 현황과 그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수출보험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수출보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지원정책으로써 수출보험의 역할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II. 무역결제방식의 일반적 고찰

1. 송금(Remittance)에 의한 무역결제방식

1) 의의

송금결제방식(remittance)은 신용장방식 또는 추심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 방법으로서 물품대금의 전액을 외화로 영수 또는 지급하는 조건을 말한다. 즉 이 결제방식은 수입업자가 상품의 인도전·인도 후 또는 인도와 동시에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외화로 송금(remittance)하여 지불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하는 방법이다.

2) 종류

(1) 단순송금방식(Payment in Advance)

단순송금방식은 수입업자가 대금의 전액을 물품선적 전에 외화나 수표 등으로 수출업자에게 미리 송금하여 지불하고 수출업자는 일정기간 내에 이에 상응하는 상품을 선적하는 방식이다. 이를 선송금 방식(Advance Remittance)이라고도 한다¹⁾. 이 방식은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주문만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해 대금결제방식과는 구별되며 대금결제가 물품의 인도전에 미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심결제방식과도 차이가 난다. 또한 단순송금결제방식에는 수입상이 송금하는 수단에 따라 수입상 개인의 수표송금방식(Personal check base), 은행의 송금수표 방식(demand draft : D/D), 우편송금환방식(mail transfer : M/T), 또는 전신환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 T/T) 등으로 구분된다²⁾.

(2) 대금상환도방식

대금상환도방식은 수입상이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될 당시 또는 그 인도된 후에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출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대금상환도 조건부 수출입방식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이라 부르고 있다.

이 방식은 대금과 상환으로 인도하여야 할 대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COD(서류결제인도, 현물상환결제)방식이라 하고 대상물이 서류일 경우에는 CAD(서류결제인도, 서류상환결제)방식으로 구분된다.

1) 남풍우, 「무역결제론」, 도서출판 두남, 2006, p.65.

2)

2. 추심(Collection)에 의한 결제방식

1) 정의

추심(Collection)이라 함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①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②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로 서류를 인도하거나 ③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목적 등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인도하는 목적으로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³⁾

2) 종류

(1) 지급인도(D/P : Documents Against Payment)조건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 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 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bank)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 온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2) 인수인도(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출상이 수입상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기한부 어음(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여 온 수출상의 거래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3) D/P와 D/A 결제방식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D/P방식에서는 수출상이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하는데 비하여, D/A 방식에서는 수출상이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수입업자에게 환어음의 지급만기일 만큼 D/P방식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신용을 공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출상이 환어음을 추심 의뢰할 때에는 선적서류의 인도

3) URC.522 제2조 a항

방식이 D/P방식인지 D/A방식인지를 명시하여야하는데, 그 지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이를 D/P방식의 추심 환어음으로 간주한다.

3. 신용장(Letter of Credit)방식

1) 신용장(letter of credit)방식의 개념

(1) 의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 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 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 하에서 운송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과 어음수취인에 대하여 약정하는 증서이다. 즉,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상업신용을 은행신용으로 전환시켜주는 공급수단이다⁴⁾.

(2) 일반적 구분과 종류

신용장은 그 분류상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하나의 신용장이 그 사용방법이나 결제기간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분류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하나의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 사용법상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이자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이며, 대금지급조건으로는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이요 매입이 지정되지 않은 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ble credit)이며 서신신용장(letter credit)과 같이 얼마든지 거래성격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나타낼 수 있다.

4. 기타 결제 방식

1) 국제팩토링에 의한 결제방식

(1) 의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Accountable Receivable)과 관련 팩토링 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의 인수(지급보증), 매출채권의 기일관리 및 대금회수 금융의 제공, 기타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이다.

4) 강진석, 「무역실무론」, 청목출판사, 2001, pp117~118.

(2) 기능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와의 약정에 따라 수입상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수출채권의 양수 및 송금 등 대금회수를 보장한다. 수출팩터는 수출상과의 약정에 따라 수출채권을 관리하고 전도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전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 또한 팩터는 회계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수출채권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준다.

2) 포피팅 방식에 의한 결제방식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출거래에 따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소구권 없이 할인하여 신용판매를 현찰판매로 환원시키는 금융기법이다. 포피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Ⅲ.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와 시사점

1. 무역거래방식 변화의 배경

무역결제방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각각의 방식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는 비용, 위험부담, 거래의 편의성, 자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의 여러 결제 방식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제방식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용측면에서 보면 수출입대금결제는 환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을 경유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수수료, 이자, 부대비용등 여러 가지의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수출업자는 단순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 등의 순으로 유리한 반면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추심방식,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등의 순으로 유리하다. 또한 위험부담 측면에서 보면 수출업자는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상환을 받지 못하는 신용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지급하고도 물품을 인수받지 못하거나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이 인도되는 등 상업위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사전송금방식, 신용장, 추심, 사후송금방식 방식 순으로 선호하며, 수입업자의 경우는 사후송금 방식, 신용장 방식, 추심 방식, 사전송금 방식 순으로 선호하는 체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결국 수출업자는 가능한 빨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수입상은 대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유리 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무역결제방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무역결제방식들 중에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피가 크고 저가의 물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IT품목처럼 가볍고 높은 가격이 주요 수출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절차 및 비용 면에서 유리한 송금방식을 선호하게 되었고, 국내외간 금리차이의 축소에 따라 신용장방식이 금융측면에서 메리트 상실하게 되었다. 이하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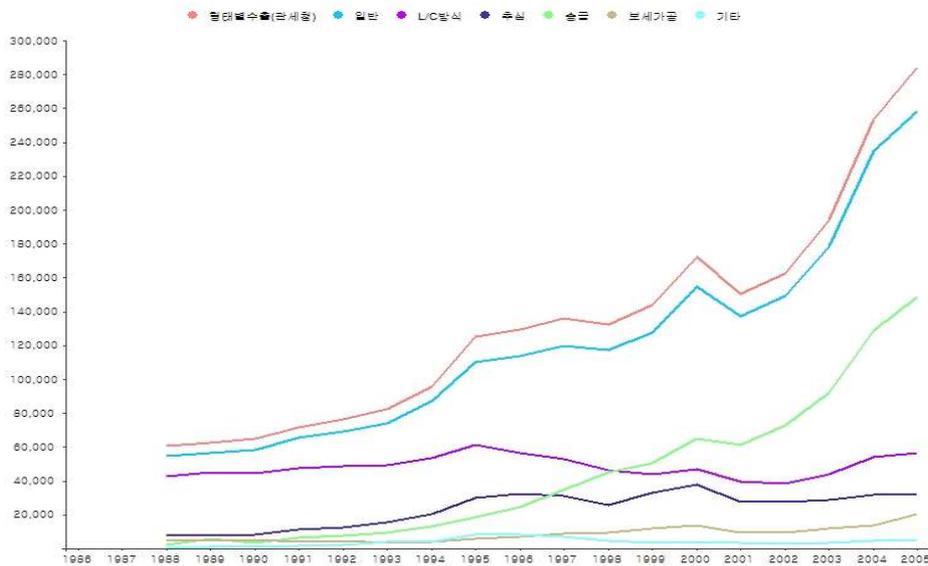
2. 수출·입 결제방식의 이용현황

1) 결제방식별 이용현황

국제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간의 이해를 충족시켜주는 조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신용장 방식과 추심방식이다. 1990년 이후 결제방식을 살펴보면, 신용장 방식의 비중이 낮아지고 무신용장 방식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송금방식의 결제비중이 현저히 상승하고 있다(한국은행, 1996). 특히 [그림 1]에서 보듯이 수출결제방식의 경우, 1997년 이후 신용장 방식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송금방식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무역대금 결제수단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자료출처 : 경제통계시스템·한국은행

수입대금 결제방식중 송금방식 결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전체 수입의 50%를 넘어서고, 수출시에도 송금방식 결제가 '03년에 이어 50%를 상회하며 송금방식 결제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방식 수입은 '00년 전체수입의 28.5%에서 지난해 50.4%로, 송금 방식 수출은 '00년 42.9%에서 지난해 52.7%로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신용장(L/C) 및 추심(D/A,D/P)방식 결제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장방식 수입비중은 '00년에 전체 수입의 54.3%에서 지난해에는 37.3%로, 추심방식 수입은 '00년 10.2%에서 지난해 5.7%로 감소하였고, 수출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대금결제방식의 변화는 신용장방식 이용시에 복잡한 절차, 부대비용 등의 부담과 대기업의 경우 현지법인·자사와의 거래가 확대되고 거래방식이 소량수시 주문형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결제방식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00년		'03년		'04년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수입	송금	458	28.5%	856	47.9%	1,131	50.4%
	신용장	871	54.3%	695	38.8%	838	37.3%
	추심	163	10.2%	122	6.8%	127	5.7%
	기타	113	7.0%	115	6.4%	149	6.6%
	계	1,605	100%	1,788	100%	2,245	100%
수출	송금	739	42.9%	972	50.1%	1,337	52.7%
	신용장	475	27.6%	444	22.9%	545	21.5%
	추심	390	22.6%	294	15.2%	324	12.8%
	기타	118	6.9%	229	11.8%	332	13.1%
	계	1,723	100%	1,938	100%	2,538	100%

자료 : 관세청, 2005년 3월 2일, 보도자료.

2) 품목별 결제방식별 변화추이

(1) 품목별 수출결제방식의 변화

결제방식별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송금방식은 반도체의 수출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신용장 및 추심방식의 경우는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7이후부터 반도체등 전기전자가 신용장의 결제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송금방식의 비중이 증가하여 우리나라 수출결제방식이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표 2〉 결제방식별 주요 수출물품

(단위 : 억불, %)

구분	반도체 (8542)	송수신기 (8525)	선박 (8901)	석유제품 (2710)	기타	계
송금 (구성비)	137 (10.2)	131 (9.8)	122 (9.1)	84 (6.2)	863 (64.7)	1,337 (100)
구분	승용차 (8703)	송수신기 (8525)	석유제품 (2710)	자동차부품 (8708)	기타	계
신용장 (구성비)	93 (17.1)	27 (5.0)	16 (2.9)	14 (2.6)	395 (72.4)	545 (100)
구분	승용차 (8703)	자동차부품 (8708)	반도체 (8542)	식물 (4011)	기타	계
추심 (구성비)	114 (35.3)	18 (5.5)	16 (4.9)	13 (3.9)	163 (50.4)	324 (100)

주 : 품목은 HS 4단위 기준임, 2004년 기준임.
 자료 : 관세청, 2005년 3월 2일, 보도자료.

(2) 품목별 수입결제방식의 변화

품목별 결제방식을 보면 수출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등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낮은 품목과 원유 등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수입의 경우는 송금 및 신용장방식 모두 원유수입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추심방식은 석탄 수입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결제방식별 주요 수입물품

(단위 : 억불, %)

구분	원유 (2709)	반도체 (8542)	가스류 (2711)	금 (7108)	기타	계
송금 (구성비)	171 (15.1)	99 (8.7)	72 (6.4)	32 (2.9)	757 (66.9)	1,131 (100)
구분	원유 (2709)	석유제품 (2710)	철압연제품 (7208)	반도체 (8542)	기타	계
신용장 (구성비)	127 (15.2)	44 (5.3)	31 (3.7)	25 (3.0)	611 (72.8)	838 (100)
구분	석탄 (2701)	반도체 (8542)	철광 (2601)	승용차 (8703)	기타	계
추심 (구성비)	14 (11.4)	8 (6.5)	7 (5.6)	5 (3.8)	93 (72.7)	127 (100)

주 : 결제방식 구성비는 품목별 전체수입에 대한 비중임
 자료 : 관세청, 2005년 3월 2일, 보도자료.

3. 무역결제방식 변화의 주요원인

위에서와 같이 한국 수출입 결제방식은 선진국형인 송금방식으로의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크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중 86.1%를 차지하던 신용장 결제방식이 2004년에 들어 21.5%로 크게 떨어지고 송금방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으로 분석된다.

먼저 신용장방식에 있어서의 부대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무역업체의 인력감축과 더불어 기존의 거래안전성을 보장하던 신용장방식이 복잡한 절차와 각종수수료 등 부대비용 증가로 신용장방식보다는 송금방식의 선호현상이 증가하였다. 신용장방식은 과거 은행의 수입자에 대한 지급보장으로 거래안전성이라는 메리트가 크게 작용하였으나 무역업체의 인력감축으로 복잡한 절차와 각종 수수료 등을 요하기 때문에 신용장방식의 기피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둘째, 외환유동성 악화가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유동성의 악화로 인해 수출입관련 신용제공이 어려워졌고 송금방식을 이용함에 따라 대금의 조기결제를 통해 환율변동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역거래에 있어서 송금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세 번째 원인은 선진지역중심으로의 거래관계 증가이다. 그동안 국내 무역업체들은 북미, 유럽 등 선진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양자 간의 상호 신용도가 제고되어 송금방식에 대한 선호경향이 높아졌다. 즉, 수출의 경우 개도국을 중심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거나 거래관계가 짧은 경우 국내 무역업체들은 신용장방식을 여전히 선호하지만 거래관계가 상당기간 유지되어 상호 신용이 쌓이고 국가신용이 높은 선진지역은 신용장방식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이다(신승관, 2001).

다음으로 거래방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주종상품인 반도체, 산업용전자와 가전제품 등에서 거래방식이 소량수시 주문 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송금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1995년 이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 전자메이커들이 은행 부대비용과 서류처리 과다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해 송금방식의 하나인 Open Account방식⁵⁾을 도입함으로써 신용장방식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이다. 수입의 경우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증가로 유발된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발생하였다.

또, 국내기업과 해외지사간의 거래 증가가 있다. 대기업의 경우 과거 해외바이어와의 직거래 시 D/A나 신용장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해외 바이어들이 거래규모가 커지고 거래관계의 편의성을 위해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들이나 지사와의 거래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내 본사와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서 송금방식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여섯 번째로 송금방식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증가를 들 수 있겠다. 1997년 이후 기업 구조조정의 여

5) Open Account는 "외상"거래를 말한다. 먼저 물건을 보내주고 내역을 통보하면(=Invoice와 관련서류를 송부하면) 약정에 따라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표, 전신환 등등의 방식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파로 무역업체 종사자들이 다수 퇴사하여 무역업체를 설립함에 따라 1998년부터 소규모 중소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즉 연간 수출이 천만 달러 이하의 무역업체들이 1997년 중 24,879사이던 것이 1998년 말에 들어서는 30,452사로 크게 증가하였고 1999년 들어서도 31,089개사로 더욱 늘어났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무역실무에 익숙하지 못해 신용장 기피현상이 있는데다 거래특성상 소규모로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절차가 간소하고 은행 수수료가 적은 송금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 중견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수입의 경우 신용도 하락으로 신용장개설이 용이하지 못한 것도 신용장방식 비중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곱 번째 원인으로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한 국제교역체계의 혁신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역대금결제 방식이 용이하고 시간 및 비용이 적게 드는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의 증가가 하게 되었고, 전자 결제의 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무신용장 방식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7월 무역자동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상역, 외환, 통관, 운송, 보험 등 수출입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관련 업무를 무역업체와 무역 관련기관이 VAN(부가통신망 : Value Added Network)을 매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재화를 인터넷으로 통관할 때 기존의 복잡한 신용장방식 무역체계는 혁신적으로 변동되어 국제간의 교역에서 복잡한 제반 절차와 과정을 혁신적으로 줄여나가게 된다. 예로 한빛, 조흥, 외환은행의 인터넷 무역대금결제서비스 광고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을 생산자가 아닌 구매자가 가지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신용장 거래는 수입자 입장보다는 수출자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거래 방식이다. 처음에 수출시장에서 소수의 공급자들만이 존재했을 때는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에게 유리한 신용장 방식의 결제를 선호했다. 그러나 수출시장이 점차 성장하며 공급자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게 됨으로써 수요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인 비신용장방식을 채택하였다.

최근 결제방식의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나는 선진국 형 결제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송금방식 비중이 5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해외 무역상과 거래관계를 지속할 경우 송금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송금방식의 비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신용장 방식의 급감으로 기존의 L/C내도액이 수출 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송금방식이 수출의 주 결제방식으로 정착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송금방식에 대한 수출보험요율을 D/P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출보험제도의 개요

수출무역은 무역업자간의 물품의 매매로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특정물품의 인도와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수출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의 거래이므로 국내거래에 비해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다.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가운데서 통사의 위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위험, 즉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대금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대금을 대출한 금융기관 등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로서의 비영리정책보험이 바로 수출 보험제도이다⁶⁾. 해상보험은 항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인해 수출화물 및 수입 화물에 멸실, 파손 등을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에 반해 수출보험은 화물자체의 손실을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다. 수출보험제도는 대외적으로는 가격보조수단인 수출금융지원에 비하여 실질적인 수출보조효과를 살리면서 수출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직접금융 지원 방식에 비해 금융지원의 편중배분, 인플레이션 요인 등 지원의 역기능을 해소하면서도 한정된 운영재원으로 수출금융보완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출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 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 하는데에 제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⁷⁾. 또 수출보험은 금융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 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수출 진흥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서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됨에 따라 보험요율 등을 정함에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여 가능한 한 저율로 책정하는 한편 보상요율 등에서는 최대한 수출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보상 제도를 채택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수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으로서 수출보험은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효과적으

6) 이계현, “한국기업의 수출보험관리와 수출보험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7, p.54.

7) 정홍주, “무역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의 역할”, 「무역논문집」, 제10호 성균관대학교 무역학대학원, 1992, pp.38~39.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 수입선의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하고,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⁸⁾.

2. 결제 방식의 변화와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

1) 결제방식의 변화와 수출보험 현황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로 무역대금결제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무역대금결제 리스크에 대한 수출업체의 대표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수출보험제도를 들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1990년대를 통해 수출보험 활용률의 신장세를 예견할 수 있는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이후 수출보험 활용률이 두자리수를 넘어서 2003년 현재 18.7%에 이르고 있다.

<표 5> 수출보험 활용률

(단위 : 억달러,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수출실적(A)	1,437	1,723	1,504	1,625	1,943
인수실적(B)	281	309	265	305	364
활용률(B/A)	19.6%	17.9%	17.6%	18.8%	18.7%

주 : 통관기술 수출실적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업무현황」, 2003. p.10. 재구성.

2004년 현재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0개 수출보험과 더불어 수출 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수출신용보증의 3개 상품이 전체 인수실적의 85.3%를 점유하고 있다(<표 6> 참조). 한편 이들 3개 주요 수출보험 상품들은 무역대금결제 리스크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에 따른 이들 상품들의 손해를 변화 등 운영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6> 수출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단위 : 억달러, %)

구분 \ 년도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단기	63,739	120,174	273,468	286,225	295,324	337,492	380,908	248,734

8) 방희석, 「무역실무」, 박영사, 2002, pp.433 ~ 435.

어음보험	25,370	10,661	3,347	3,683	1,303	70	4	폐지
신용보증	2,013	3,843	27,465	27,216	26,315	18,782	17,820	7,437
소 계 (비중,%)	91,128	135,164	304,932	317,570	323,201	356,470	398,798	256,205
	(90.7)	(88.3)	(89.2)	(88.4)	(86.6)	(84.8)	(79.5)	(85.3)
증장기	6,652	14,326	12,792	8,893	4,665	6,254	12,122	2,334
보증보험	1,491	2,321	20,345	20,098	13,115	8,095	4,854	7,957
계	100,445	153,064	341,690	359,174	373,146	420,403	501,349	300,309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업무현황」, 2004. p.65.

2) 무역결제 리스크와 수출보험 손해율

非신용장방식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무역대금결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출보험의 활용률이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非신용장방식 무역대금결제의 잠재리스크와 수출보험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임을 고려할 때, 향후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수출신용보증 등의 수출보험 손해율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동 상품들의 손해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어음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의 손해율이 2000년 이후 200% 이상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역결제수단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진흥이라고 하는 수출보험 본연의 정책적인 성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200% 이상의 손해율은 보험사업의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출보험의 손해율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7> 수출보험 손해율 및 회수현황

(단위 : 억달러,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보험금(A)	2,003	9,903	3,605	3,810	3,627
보험료(B)	833	813	846	887	1,075
손해율(A/B)	240.5%	1,218.1%	426.1%	429.5%	337.4%
회수금(C)	531	3,146	205	640	906
실질손해율 (A/(B+C))	146.8%	250.1%	343.0%	249.5%	183.1%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업무현황」, 2003. p.11.

무역대금 결제 리스크의 증가에 따른 수출보험의 손해율 안정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리

스크관리가 중요하다. 체계적 리스크관리란 특정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리스크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수단을 선택하고, 선정된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실제운영,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무역대금 결제 리스크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보험자의 체계적 리스크관리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한다.

첫째, 리스크분석 차원에서, 수출보험자는 무역대금결제 리스크의 규모와 이에 따른 수출보험의 손해를 추이를 전망하여야 한다. 과거 데이터와 외국의 예를 바탕으로 무역대금결제 리스크의 증가에 따른 손실발생빈도와 손실규모를 측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예상손실 및 손해를 예상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출보험사업의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지급 능력등을 감안하여 종 목별 손해를 상한을 책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시적인 손해를 목표의 설정은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출보험의 손해를 안정에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손해를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리스크 관리는 사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인 리스크관리와 사후적인 리스크관리로 구분될 수 있다.

사전적인 리스크관리라 함은 사고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로서 기본적으로는 철저한 언더라이팅 기능에 의존한다고 하겠다. 불량 리스크의 배제, 인수된 리스크들의 적절한 분류, 그룹별 보험료 차별화를 근간으로 하는 언더라이팅은 역선택⁹⁾ 방지를 위하여, 즉 보험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기능이다. 공영보험으로서 수출보험의 정책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민영보험에서와 같은 철저한 언더라이팅 기능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언더라이팅의 기본 원칙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강화, 국가별 비상위험조사 강화, 보험료를 체계의 고도화 등은 기본적인 조건이다. 한편 수출보험의 경우에는 신용 리스크의 개별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측에서 리스크를 역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상리스크에 의한 보험사고의 동시다발성 때문에 근소한 역선택의 경우에도 대형 보험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수출보험의 경우에는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포괄보험의 실시, After Loss제도, 부보기간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다.

사후적인 리스크 관리라 함은 사고발생 후 손실감소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는 손해사정 기능에 의존한다. 도덕적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인바 귀책, 면책 사유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보험금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책임있는 당사자에 대한 채권행사를 강화하여 회수율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해외 채무 추심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불량 수입업자에 대한 소송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효율적인 회수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경우에 있어 최선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있을 수 없는바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다. 수출보

9) 위험발생률이 보통이상인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가입 혹은 연장을 기도 하려는 성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험자의 내부통제에 의한 기존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면밀한 점검이 항시 요구되며,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다.

3.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출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및 정책운영 관리측면

먼저 탄력적인 보험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행 수출보험법은 수출보험종목별로 부보율, 담보위험 등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제도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제도의 내용을 개선하거나 신종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법개정이 시행되어야하므로 국제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다. 급변하는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종보험을 연구,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보험종목으로는 제8차 수출보험법개정에서 제시된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기술용역수출보험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보험종목들이 앞으로 우리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담보위험의 확대 또는 축소, 부보율 조정 등을 통한 제도운영의 탄력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기금출연을 전년도말 책임 잔액(유효계약)의 일정비율에 연계토록 법에 명시하여 정부의 자동적 기금출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의 신용기간, 거래규모, 수출입국의 위험도 등에서 수출보험기관의 담보력을 초과하는 등 준상업적기준으로 지원을 별도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보험이용률의 제고도 필요하다. 보험운영에 있어서의 적극성결여는 결과적으로 수출업체의 보험이용의욕을 충분히 고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 홍보활동이외에 적극적인 수출보험 인수 및 보상을 통한 보험수요기반의 질적, 양적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위험이 비교적 높은 국가와의 거래, 대형거래 또는 무보증거래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수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비상위험의 동시다발성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위험 인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위험을 부담하는 방편으로 정부계정의 설치, 운영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률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포괄보험이 적용되는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및 수출보증보험에서 부실지역 및 부보조건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인수한도를 증액하는 등 포괄보험의 부보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개선해야 할 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활용지원이다. 현재 수출보험에 대한 참여율 면에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이나 대외경제 활동 면에서 직면하는 불리함으로 인해 유발되는 위험의 정도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참여가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으나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비율 부담 면에서의 차이도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는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중소기업

업부문 육성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수출보험 측면에서도 이러한 상황변동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중소기업의 참여율 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험율, 보상율, 신용도 평가기준, 보험지급 유예기간, 부보율 및 보험료 납입방법 등 여러 면에서 특별한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대기업과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각종 여타 지원책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외경제활동자세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특히, 기존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금융 및 신용보증기금과의 연계는 물론 새로운 중소기업 투자촉진기금 등과 같은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지원기금의 설정과 수출보험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수출보험의 중소기업지원효과는 그것이 지원정책과 효과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보험의 중소기업지원효과가 갖는 전략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그러한 전략적 요소의 활용성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상 이러한 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각종 경제적 지원정책이 그간의 직접적인 지원으로부터 간접적인 지원의 형태로 전환해 가는 상황 하에서 수출보험에 대한 정책당국과 민간 기업부문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네 번째로 운영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 모든 개편과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요건의 하나는 실질적인 담보력의 확대와 공신력의 증대를 통한 운영의 원활화와 활성화를 위한 운영기금의 확충인 것이다. 선진국 수출보험기관의 기금규모가 보험책임한도액의 10%수준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보험책임 한도액의 3%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수출보험공사 기금규모가 매우 영세하다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영세성은 실제 보험을 운영하는 공사의 보험운용에 대한 자세를 극히 보수적으로 만들어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과감한 수출보험의 운영으로 수출 진흥을 모색하고 수출보험의 이용률을 현재의 3%수준에서 20%까지 제고시켜야 하겠다. 운영기금의 확충 방법은 정부출연금의 증액과 기타 재원의 확보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책적 보험으로서 수출보험의 기능이 경제의 절대규모, 그 중에서도 특히 대외경제활동의 절대규모가 증대되는 것과 비례하여 또는 그 이상의 속도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운영기금의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증대되어야 할 것인가를 산술적으로 산정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점은 운영기금의 절대, 상대적 영세성은 보험운영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를 제약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기금의 확대를 위한 재원의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 과제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출연금 확대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조세에 의해 충당하는 정부재원으로서 수출보험을 통해 수출기업과 관련 산업 부문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재원일부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현재까지 다년간 활용되어 온 무역협회의 재원조달방법(즉, 무역특허자금)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요율의 차등화를 들 수 있다. 수출보험에서 보험요율 체계가 갖는 특징은 수출보험 이용율의 주요결정요인이 환율, 국제인수, 통화량, 수출상품구조 및 수출시장구조 등 보험자가 결정할

수 없는 거시경제 변수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출보험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증대되도록 효율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며, 현행기본요율 및 각종 특별할인율이 보다 적절히 차등화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효율체계의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충분한 자료의 축적과 분석을 통해 모든 종목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출보험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중 우선되는 것은 과감한 요율 인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요율인하는 국제적 규제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며, 수출보험사업의 장기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 수출보험종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 자체의 양적,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보험종목을 개발하고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출보험제도에 핵심적 과제인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과제는 여타의 정책적 수단에 의해 커버할 수 없는 수출보험 고유의 기능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국가 정책적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일곱 번째, 계량적·통계적 접근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출보험은 민간금융기관이 진출할 수 없는 고 위험거래를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 진흥을 촉진하고 부수적으로는 수출기업과 민간금융기관의 업무영역 내지 진출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반대로는 수출보험의 지나친 지원정책은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시켜 오히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 바 있다. 예컨대, 사향산업이거나 경쟁력 없는 수출상품에 대해서 수출보험으로 지원할 경우 일시적으로 수출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은 우리나라 수출액 중 약 16%를 커버하고 있으며 매년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연간계약체결 한도는 약 30조원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수출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수출보험관련기관은 수출기업체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우리나라 수출보험을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수출보험 정책지원 결정 시 가능한 계량적, 통계적 접근방법을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출보험은 흔히 상업보험에서 적용되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 간 정보교환이 부족하고 현재와 같은 인터넷이란 문명의 이기가 없었던 50, 60년대의 고루한 이론일지라도 모른다. 현대와 같이 PC보급이 확대되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동시간대로 얻어낼 수 있는 환경 하에서는 전통적인 이론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 번째로 산업분석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수출보험은 수입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나, 수입자의 신용상태에 의존하여 수출보험 지원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최근의 수출보험 경영환경을 보면, Project Financing, 벤처기업 등 미래투자가치에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어떤 국가의 경우 석유화학, 반도체 등 특성 몇 개 산업에의 의존율이 높아서 구가전체의 대외지급능력이 특정산업의 향후 전망에 따라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수출보험 운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분석하기 위하

여 국가 신용조사와 수입자 신용조사만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특정 산업 또는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 일본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플랜트산업은 신규 해외진출분야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전반적인 대외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수출거래가 고 위험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플랜트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외수주경험을 넓히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므로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수출보험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며, 수출보험의 운영전략 및 제도적인 면에서 유럽, 일본의 모델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 서비스측면

서비스 측면에서는 먼저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수출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여 보험수요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홍보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현재와 같이 수출보험의 이용률이 부진한 이유로 홍보부족과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의 결여에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대외거래위험을 담보하여 신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수출을 촉진하며, 무역 관련금융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등 수출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화, 국제화에 기여하는 공익기관으로서 수출보험공사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 및 지명도의 상승으로 고객을 발굴하고 이용률을 증대하도록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개선해야 할 점은 인식의 제고와 연구의 확대이다. 대부분의 수출보험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기업이다. 가계성 보험 상품에 비해 시장에 관한 공급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서 보험을 구입하는 동기는 기업경영의 안정 확보, 도산비용의 존재, 조세 및 금융비용의 절감, 대리인 문제 등이며 반대로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에 대한 이해와 정보부족, 제도적 지원불비, 불리한 가격체계이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위험관리비용상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의 우위에서의 역 선택과(adverse selection)과 유사시의 정부 의존적 기대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또한 보험소비의 시간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과거 집착적인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계약자의 후회와 회망 등이 보험자의 서비스 정신함량 등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무역관련 위험의 체계화, 관리방식의 합리화의 관점에서 보험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전문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신용조사업무와 위험조사업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수출보험의 서비스 측면으로 신용조사업무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위험의 계약자가 대외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수출보험 담당기관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장기투자자의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 수출입 결제방식의 주요 특징은 신용장 결제방식의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T/T 등 송금방식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중 특히 수출의 경우 1999년 들어 송금방식의 비중이 신용장방식의 비중을 상회하여 송금방식이 주요 수출결제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외환위기 이후 은행수수료 등 부대비용 증대도 신용장방식 기피경향을 심화시켰다. 지역별로 보면 개도국지역보다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지역에서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으로의 결제방식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무역업체들의 입장에서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국가신용도가 높은데다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상호 신뢰관계가 높게 쌓여 송금방식으로의 전환이 전반적으로 용이하였다. 수출의 경우 대선진국 결제방식 변화폭은 평균 20%로 개도국지역의 변화폭인 10%보다 약 2배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이러한 변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농수산물, 섬유류 등은 거래단위당 Lot가 커서 신용장방식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반도체, 산업용전자 등 수출주중품목의 거래방식이 소량수시 주문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송금방식 결제비중 확대가 전체 수출입 결제방식 변화를 주도하였다.

최근 결제방식의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나는 결제방식이 선진국형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송금방식 비중이 40%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많은 업체들이 해외 무역상과 거래관계를 지속할 경우 송금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송금방식의 비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신용장 방식의 급감으로 기존의 L/C레도액이 수출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 송금방식이 수출의 주결제방식으로 정착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송금방식에 대한 수출보험요율을 D/P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결제기간이 3개월이고 1등급 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송금방식 보험요율은 0.23%로 D/P의 0.12%와 L/C의 0.06%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수입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 무역업체들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출선 다변화전략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부분이 주로 D/A 방식에 의한 Stock sale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에 묶여 수출증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개도국의 수입상들은 자국 현지 경제상정을 고려하여 수출상의 신용을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금융의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희국, “신용장방식 대금결제방법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5권 2호, 2002.
- 남풍우, 「무역결제론」, 두남, 2006.
- 민 회, “송금방식 결제비중, 사상 처음 전체 수입의 50% 상회”, 관세청 보도자료, 2002.
- 손상기, “수출입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대외결제방식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상무상회지, 제13권 2호, 1998.
- 신승관, “무역결제방식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1.
- 양승규·이은섭, 「제무역보험론」, 신영사, 2000.
- 이제현, “한국의 수출위험관리와 수출보험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대학원, 2000.
- 장동한·김병선, 「무역대금 결제방식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상경연구, 2001.
- 한국은행, “수출입거래의 결제관행변화”, 보도자료, 1999.
- Brdger, J.A Tony, "Effective Risk Management Through Loss Exposur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51, 1984.
- Dick, Briggs and Edwards, Burt, credit insurance : How to reduce the risks of trade credit, Woodhead-Faulkner, 1998.
- H. Edwards, *Export-credit : the effective and profitable management of export credit and finance*, London : Bulter & Tonner Ltd, 1983.
- James E. Byrne, "The views of Professor James E. Byrne on why new draft rules for standbys are necessary," *Documentary Credit Insight*, Vol 3 n 2 Spring 1997, p.13.
- Richard E. Caves, *World Trade and Payments*, Addison-wesley, 1999.